

»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예방 대책

충분한 면역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오 성 식

(주)동화축산 전무이사

최 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겨울은 갈수록 혹독하게 추워지고 여름은 갈수록 살인적으로 더워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했는데, 굳이 기상청의 예보가 아니더라도 과거 2~3년에 비해서 해마다 더워지는 것을 이미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이제 한여름의 절정인 7월과 8월을 맞이하는 이 때 무사히 여름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동안 공들여서 키워온 닭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닭들이 더위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농장의 수익은 얼마만큼 감소하게 될지 매일매일 농장에서 닭들과 생활하는 농가들은 더 잘 알 것이다.

고온, 저온, 질병, 이동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있을 때 농장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처방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전해질 제제이다.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걸리면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의 요구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무더운 날씨가 되거나 백신 접종 후라면 식욕이 떨어지고 탈수가 쉽게



진행되어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도 역시 부족하게 된다.

이때 충분한 비타민과 적절한 전해질 레벨이 유지되어야 생체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본사를 비롯하여 타 업체들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제제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동물한테 각종 스트레스가 왔을 때 굉장히 필요한 비타민 C부터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까지 들어 있는 종합 제제로,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예방·치료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또한 고온 스트레스 뿐 만이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가 오면 혈청의 코티코스테로이드

의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면역 발달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면 닭은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데, 이것은 2011년에 배합사료 내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전에는 사료 안에 항생제를 성장촉진제로 사용하면서 닭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주거나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성 등의 문제로 항생제의 첨가가 금지되면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닭들은 여러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농장에서 알고는 있지만, 평소예 제대로 실천하기 힘들고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튼

튼하게 고쳐놓는 것'이 훨씬 상책이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질병이 농장을 덮치기 전에 미리 닭들의 면역력을 증강시켜놓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피해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 닭의 면역력 강화라는 부분에 투자하지 않는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생체 내의 항상성이

표 1. 고온 스트레스 제제 성분 및 함량 예(1kg 중)

비타민 A	6,666,667 IU.
비타민 D ₃	1,333,333 IU.
비타민 E	200,000 IU.
비타민 B ₁₂	6.67 mg
비타민 B ₆	1,333mg
엽산	167 mg
비타민 C	13,334mg
비타민 K	3,333mg
Sodium(Na ⁺)	12,600 MEq
Potassium(K ⁺)	667 MEq
Magnesium(Mg ²⁺)	579 MEq
Calcium(Ca ²⁺)	27 MEq

표 2. 계종별 고온스트레스 적용 시 효과

산란계 및 종계(고온 스트레스 시)	육계 및 오리(고온 스트레스 시)
- 산란 촉진	- 조기 폐사 감소
- 난중 증가 및 난각 강화	- 성장촉진
- 파란을 감소	- 사료 섭취량 증가
- 사료 섭취량 증가	- 출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량 감소
- 설사 및 탈수 치료	- 설사 및 탈수 치료
- 사료 교체, 백신 등에 의한 스트레스 예방	- 백신 접종에 의한 스트레스 예방

유지되어야만 이 체계가 튼튼히 잡힐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비타민과 전해질 제제를 꾸준히 공급해주었느냐에 따라서 강약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항상성 유지라는 부분은 눈에는 확 띄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일단 눈앞에 들어가는 약값 걱정 때문에 농장주들이 제품 선택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요즘 한 광고처럼, 이 XX가 참~ 좋은데, 닭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실제로 스트레스 제제를 써본 농장들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사의 제품을 예를 들어 몇 가지 고온 스트레스 제제의 트렌드를 보면, 'N' 제품의 경우 뛰어난 희석력으로 지극히 짧은 시간 내에 녹고 급수기가 막히지 않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100% 흡수되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며, 항생제나 설파제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닭들이 고온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제제의 원리를 알고 농장에 잘 적용하는 것이 타 농장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양계**